소송,파산관재,채권회수,기업법무,투자컨설팅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yisngmin@gmail.com
(021)525-5959, 0816-1911-245

한국·인도네시아의 길잡이
HANIN POST
한인포스트
www.haninpost.com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2005년 10월 5일 창간 주간 제1050호 광고/구독 문의: 카톡 haninpost 유료 : 35만 루피아/월 4회 e-Paper 2026년 11월 3일

전 세계 33개국, 시민들에 '식량·의약품 비상 비축' 권고 … 글로벌 복합 위기감 고조

- 지정학적 긴장 · 공급망 교란 등 불확실성 확대에 각국 '생존 매뉴얼' 가동
- 인니 상공회의소(Kadin) 회장, "식량 ·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국가적 완충 장치 구축 시급"
- 민관 협력 모델 '인도네시아 주식회사(Indonesia Inc.)' 통해 위기 극복 및 경제 도약 모색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복합적인 위기 징후가 잇따르면서 국제 사회의 경계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 33개국 정부가 자국 시민들에게 잠재적인 비상사태에 대비해 식량과 식수, 의약품 등 필수 생존 물품을 사전에 비축할 것을 공식 권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인도네시아 경제계 역시 국가 안보 차원의 자원 확보와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강대국도 예외 없는 '비상 비축'… Индия, 식량·에너지 안보 계기로 삼아야

아닌디아 노브얀 바크리(Anindya Novyan Bakrie)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카딘) 회장은 최근 주요국들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물자 비축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초기 위기를 자발적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생필품 구비를 독려하고 있는 현상에 깊은 우려와 관심을 표명했다.

지난 2026년 10월 29일(목) 중앙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26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전국지도자회의(Rapimnas)'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아닌디아 회장은 주요 선진국들의 구체적인 대비 태세를 직접 거론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아닌디아 회장은 " 현재 세계 각국이 비상 물자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일부 소국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최대 90일분의 유류(BBM) 비축량을 국가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모든 가정이 비상사태 발생 시 외부의 도움 없이 최소 72시간(3일) 동안 자립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자조 능력과 생필품 비축량을 갖추도록 공식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이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가 오히려 인도네시아에게는 국가 안보, 특히 식량과 물, 에너지 부문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국가 경제 안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가가 보유한 잠재 자원을 최적화하여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식량 안보 부문에서는 주곡인 쌀 생산 능력의 극대화를, 에너지 안보 부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자원 품귀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 자원의 적극적인 발굴 및 활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닌디아 바크리(Anindya Bakrie)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회장이 10월 29일(목)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6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전국지도자회의(Rapimnas)' 개막식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Foto: Istimewa)

아닌디아 회장은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인용하며,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세계 경제의 '밝은 전망(bright spot)'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긍정적 전망은 우리 스스로의 주장이 아닌 IMF의 객관적인 진단"이라면서도, "이러한 낙관적 전망을 실질적인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략적 비축 물자 구축과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망 보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A3면에서 계속]



청정원
DAESANG

사장님의 고민은 줄이고, 요리의 품격은 올립니다!

NEW ITEM





압도적인 가성비

~~Rp.599.000~~

Rp.480.000

HARGA EKONOMIS

"프리미엄의 완성"
좋은 고추장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 봅니다

KUALITAS PREMIUM, CITARASA LEZAT!

HALAL INDONESIA
ID00410020848741024



안전관리인증 HACCP
ccm 소비자중심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세계일류상품

SCAN FOR MORE INFO

추가 정보 및 주문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INFORMASI LEBIH LANJUT & PEMESANAN:

0821-3000-6262

프라보워 대통령, '4선 성공'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 축전…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기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하며 통산 네 번째 임기를 확정 지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자신의 공식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룰라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공식 메시지를 게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역사적인 성과이자 룰라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브라질 국민들의 두터운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나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룰라 브라질 연방공화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4선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룰라 대통령이 강건한 모습으로 브라질을 이끌며 국가적 번영을 이룩하기를 기원했다.

아울러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양국 관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 속에서 양국의 우호 증진과 공조를 제안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거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들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두 민족 간의 깊은 우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룰라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경쟁자인 플라비우 볼소나루 후보를 꺾고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현지 언론에 보도된 공식 개표 결과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유효 투표수의 51.76%를 득표해 48.24%를 기록한 볼소나루 후보를 3.52%포인트 차로 제쳤다. 비교적 근소한 득표율 격차는 이번 대선 경쟁이 막판까지 매우 치열했음을 보여준다. 상대 후보였던 플라비우 볼소나루는 브라질 상원의원이자 자이르 볼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



Presiden Prabowo dalam pernyataan pers bersama Presiden Brasil Luiz Inácio Lula da Silva pada Rabu, 9 Juli 2025 di Istana Planalto, Brasilia. Foto: BPMI Setpres/Muchlis Jr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브라질 대통령은 7월 9일(현지 시각) 브라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이번 대선 결과는 브라질 정치사에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과거 두 차례의 연임(2003~2010년)과 2023년 재집권에 성공했던 룰라 대통령은 이번 승리로 통산 네 번째 대통령 임기를 맞이하게 됐다. 특히 그는 1차 투표에서 볼소나루 후보에게 우세를 내주며 2위에 머물렀으나, 결선 투표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펼쳐냈다. 이로써 룰라 대통령은 1989년 브라질에 대선 결선 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1차 투표의 열세를 뒤집고 최종 당선된 최초의 후보라는 진기록도 함께 세우게 됐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A1면에 이어서]

■ 카딘(Kadin), 국가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3대 핵심 권고안' 제시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는 이번 2026년 전국지도자회의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파고를 넘고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한 대정부 정책 권고안을 공식 마련했다. 아닌디아 회장이 밝힌 경제계의 권고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체계로 요약된다.

첫째, 예측 불가능한 대외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완충 장치(Buffer)' 구축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나 지정학적 쇼크 등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국가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적·물질적 여유 공간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국내 산업 및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보장이다. 글로벌 공급망에 병목 현상이나 단절이 발생하더라도 인도네시아 내 제조 및 산업 활동과 민간 기업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핵심 원자재의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 안보의 핵심 요소라는 지적이다.

셋째, 인도네시아의 국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 활동의 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다. 상공회의소 측은 이 세 가지 권고안이 향후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고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논의의 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는 글로벌 리스크 대응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대증요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강력한 경제적 펀더멘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협력 프레임워크인 이른바 '인도네시아 주식회사(Indonesia Inc.)' 개념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아닌디아 회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 전략으로 ▲엄격한 재정 규율 확립 ▲효율적인 재정 분권화 ▲과감한 규제 철폐(Deregulation)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 및 병목 현상 제거(Debottlenecking) 등을 꼽았다.

특히 그는 "규제 완화 및 장애물 제거는 경제 성장의 걸림돌을 줄이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이 과정에서 국가투자관리기구인 '다나타라(Danantara)'가 국가 경제 구축을 함께 이끄는 핵심 조력자(Enabler)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 부문 역시 국가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전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전쟁·기후재난·사이버 공격 대비… 33개국 '생존 배낭' 지침 현실화

한편, 인도네시아 경제계가 이토록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실제적인 비상 대비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26년 10월 28일(수)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3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식량, 식수, 의약품 및 기타 필수 생존 용품을 사전에 비축하도록 권고하는 공식 비상 대비 지침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국 정부의 이러한 권고 조치는 단순히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기후 변화로 빈번해진 대규모 홍수와 폭풍 등 극단적 자연재해는 물론, 대규모 정전 사태(블랙아웃), 나아가 국가 핵심 인프라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물류 유통망을 일거에 마비시킬 수 있는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이르기까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각적인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실제로 발생하여 물자 사재기나 유통망 마비가 일어나기 전에, 평시 상태에서 시민들이 필수 생필품을 미리 가정 내에 구비해 둘 것을 강력히 독려하고 있다.

뉴스위크가 집계한 시민 대상 비상 물자 비축 권고 국가 및 지역은 유럽을 중심으로 북미, 남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전 대륙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대륙별 상세 국가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유럽 (17개국):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크로아티아
- 북아메리카 (3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남아메리카 (4개국):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 아시아 (6개국·지역): 일본, 대만, 이스라엘,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 오세아니아 (2개국): 호주, 뉴질랜드
- 아프리카 (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들 33개국은 공통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비 태세를 독려하고 있으나, 각국 정부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와 주로 직면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접근 방식과 권장 비축 기간(예: 72시간에서 최대 수주일)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주요국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단적인 예라고 분석하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들 역시 국가 차원의 자원 안보 확보는 물론 민간 차원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시급히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싱가포르 외교장관, 프라보워 대통령 회담 후 '가스 계약 존중' 촉구

계약 이행은 양국 경제 신뢰와 직결" … 인도네시아의 가스 수출 감축 속 원칙 강조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최근 불거진 천연가스 공급 축소 문제와 관련해 '계약 존중의 원칙'을 강하게 촉구했다.

3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지난 28일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보고르 함발랑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을 예방한 뒤 양국 간 가스 공급 계약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언은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향 천연가스 수출을 감축한 상황에서 양국이 계약상 의무에 대해 상호 이해에 도달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로런스 웡 총리와 탄 시 렝 통상산업부 제2장관, 그리고 인도네시아 장관들의 발언을 면밀히 살펴보면 계약 존중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모든 당사자는 서명과 계약상 의무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 이는 특정 사안을 넘어 양국 경제의 신뢰성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십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계약에 기반해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상기시키며,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신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발언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합의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웡 총리와 프라보워 대통령 간에 최고위급 소통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하며, "이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양측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바탐, 빈탄, 수마트라 지역의 전력 수요를 우선 충당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싱가포르로 향하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수출량을 일일 3,100만 표준입방피트(약 8% 규모) 감축하면서 불거졌다.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이번 감축량이 18일간 일일 170억 영국열량단위(Btu) 규모로, 싱가포르 전체 일일 가스 수요의 2% 미만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서부자바주 보고르군 함발랑에 위치한 자택에서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2026년 10월 28일 (Foto: Tangkap Layar YouTube Sekretariat Presiden)

이와 관련해 앞서 25일 웡 총리는 모든 당사자의 계약 의무 이행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바흘릴 라하달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은 이번 감축 조치가 기존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한편,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향후 싱가포르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개발 덕분에 싱가포르가 굳건한 입장에서 이번 공급 차질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공동 전략 비축유 계획 검토 및 필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각료들의 해외 파견 등을 언급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수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조치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싱가포르 외무장관 회담 계기로 양국 긴장 완화 기대"

- 신따 깜다니 APINDO 회장, 최고위급 소통 통한 현안 해결 및 경제 안정 강조

- "실물 경제 타격은 제한적… 국내 기업 환경 개선 및 규제 완화에 집중해야"

인도네시아 재계가 최근 이루어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28일(현지시간) 서부 자바주 보고르의 함발랑 관저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비비안 외무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재계는 이번 만남이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따 위자야 깜다니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부회장 겸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회장은 지난 30일 자카르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재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신따 회장은 양국이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역학 관계에 따른 이해관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녀는 국가 최고 지도부 수준에서의 직접적인 소통이 현재 대두된 여러 현안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따 회장은 "오랜 기간 지속된 양국 관계의 특성상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타협점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갈등 국면을 벗어날 출구가 마련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의 긴장 상태가 양국의 무역, 투자 및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싱가포르가 투자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핵심적인 전략적 경제 파트너라는 점이 강조됐다. 신따 회장은 기업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 관계의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국 간 긴장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석을 내놓았다. 외교적 마찰이 금융 및 자본 시장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불안 심리를 유발할 가능성은 있으나, 생산 시설 건설이나 기업 운영 등 실물 부문의 직접 투자(FDI) 관심도에는 유의미한 타격을 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녀는 "심리적 영향이 자본 시장에 일부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자본 시장과 직접 투자 활동의 영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신따 회장은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국내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내실 다지기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의 사업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일관된 경제 정책과 규제를 통해 국내외 경제 주체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직면한 외교적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국내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기업 환경 개선, 과감한 규제 철폐(완화), 산업계 병목 현상 해소 등 실물 부문의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HONGSAM BALL

BEST SERVED CHILLED

ZERO CAFFEINE

WITH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6, Vitamin B12,
and Taurine

EKSTRAK GINSENG MERAH

Vitamin C ⚡ Vitamin B1 ⚡ Vitamin B6 ⚡ Vitamin B12 ⚡ Mengandung Taurin 63 mg/can

HONGSAM BALL

HONGSAMBALL
Minuman Berperisa Berkarbonat Dengan Ginseng
(Hongsamball Original)

Red Ginseng Extract

HALAL INDONESIA

Shin Tae Yong
Hongsam Ball Ambassador

STEP IN.
COME BACK STRONG

: hongsamball.id

산불 이슈 속에서도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의지 굳건함을 재확인

로산 페르카사 로에슬라니(Rosan Perkasa Roeslani) 투자·하류화부 장관 겸 투자조정청(BKPM) 청장은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의지가 여전히 굳건하고 개방되어 있다고 확언했다. 이러한 확답은 산림 및 토지 산불(카르훗라) 문제와 이로 인한 월경성 연무 현상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양국 간 관계의 역학 속에서 전달되었다.

로산 장관은 양국이 연루된 환경 문제가 그동안 구축되어 온 경제 및 투자 관계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역임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해당 발언은 로산 장관이 목요일(2026년 10월 2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전국지도자회의(Rapimnas)에 참석한 직후에 나왔다.

로산 장관은 비비안 발라크리슈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과 회동을 갖고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지속성을 포함한 다양한 양국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양국의 투자 의지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역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로산 장관은 "마침 어제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투자 및 기타 사안들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고 열려 있음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정부가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전략적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과 소통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산 장관에 따르면, 열린 소통은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양국은 또한 경제 협력이 각국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로산 페르카사 로에슬라니(Rosan Perkasa Roeslani) 투자·하류화부 장관 겸 투자조정청(BKPM) 청장 (Foto: Istimewa)

그는 이어 "우리는 경제 및 투자 맥락에서의 개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조정과 협력의 틀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그는 투자·하류화부가 국내 기업 환경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싱가포르 투자자들로부터 다양한 건설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대화의 장도 열어두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로산 장관의 견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이웃 국가 모두의 경제적 이익과 성장이 지속 가능하게 증진될 수 있도록 이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제적 시너지 강화 조치는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를 완화하고 국내 다양한 우선순위 부문으로의 외국인 자본 유입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산 장관은 "핵심은 나 역시 그들로부터 의견과 피드백을 수렴하고, 인도네시아와 이웃 국가들의 이익이 향후 더욱 고르게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리 측의 의견도 제공하기 위해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싱가포르, 인니 산불 연관 의심 10개 기업 소환… 인니 정부 "문제 해결 위한 긍정적 조치"


2026년 10월 14일, 팔랑카라이야시의 모습. 심각한 산림 및 토지 화재로 인해 도시의 하늘빛이 주황색으로 변했다.(Foto Tangkapan Layar Video Amatir)

싱가포르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삼림 및 토지 산불(카르훗라)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10개 기업의 고위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역내 환경 문제 해결과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로산 페르카사 로에슬라니 인도네시아 투자·하류화부 장관 겸 투자조정청(BKPM) 청장은 지난 2026년 10월 29일(목)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전국지도자회의(Rapimnas)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싱가포르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로산 장관은 싱가포르의 기업 소환이 고질적인 산불 및 월경성 연무 문제 해결을 촉진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산불을 비롯한 제반 사안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양국 모두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활동이 환경이나 인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양국 공동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로산 장관은 최근 자카르타를 방문한 비비안 발라크리스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만나 산불 대응 및 연관 기업 처리를 위해 직접 소통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양국 간 대화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더 넓은 경제 협력 기회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10월 28일, 자국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인도네시아 내 사업 활동이나 토지 양허권과 연관이 있는 10개 기업의 고위 임원들을 '더 트레저리(The Treasury)' 빌딩으로 소환했다. 채널 뉴스 아시아(CNA)와 스트레이츠 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간킴용 부총리, K. 샨무감 시니어 장관, 그레이스 푸 지속가능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했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월경성 연무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깊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앞서 관련 기업들을 식별한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과 당국은 소환된 기업들에 인도네시아 내 운영 활동, 기업 간 관계, 공급망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소환 명단에 포함된 10개 기업은 ▲아시아 펄프 앤 페이퍼 컴퍼니 리미티드(Asia Pulp & Paper Company Limited) ▲아시아 펄프 앤 페이퍼 컴퍼니 (중국) 리미티드 ▲부미타마 아그리(Bumitama Agri Ltd.) ▲골든 아그리 인터내셔널(Golden Agri International Pte Ltd.) ▲퍼스트 리소시스(First Resources Ltd.) ▲인도푸드 아그리 리소시스(Indofood Agri Resources Ltd.) ▲켄카나 아그리(Kencana Agri Ltd.) ▲TSH 글로벌 플랜테이션(TSH Global Plantation Pte Ltd.) ▲TSH 오버시즈(TSH Oversea Pte Ltd.) ▲윌마 인터내셔널(Wilmar International Ltd.) 등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소환이 월경성 연무 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담보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은 현재 진상 조사 단계에 있으며 이번 소환 자체가 해당 기업들의 위법 행위가 입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싱가포르 당국은 향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기업의 산불 연루 정도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T. FREIGHT CARGO LOGISTICS



▬ 해상운송

- *Neutu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 항공운송

-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 *Air/ Sea & Sea/ Air Service*

▬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PT FREIGHT CARGO LOGISTICS
Gading Bukit Indah Blok A No.5, Kelapa Gading Barat,
Kelapa Gading Jakarta 14240
Telp: +62 21 451 3611, email: import@fcl.co.id / export@fcl.co.id

인니 정보통신부, 싱가포르 측 '인터넷망 차단' 위협에 강력 경고… "싱가포르 연결성 80%도 마비될 것"

- 메우티아 하피드 장관, 캘빈 쳉 전 싱가포르 의원의 도발적 발언에 공식 대응
- "싱가포르행 해저광케이블 대부분 인니 영해 통과… 상호 의존성 직시해야"
- 인니의 거대 디지털 시장 규모 강조하며 '디지털 인프라의 무기화' 경계 및 상호 보호 촉구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Menkomdigi)의 무티아 하피드(Meutya Hafid) 장관은 청소년 도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5.13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에너지 공급 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이 디지털 인프라 영역으로 번진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싱가포르 일각에서 제기된 '인터넷 회선 차단'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도 논리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양국의 디지털 연결망이 상호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일방적인 차단 조치는 싱가포르에게도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메우티아 하피드(Meutya Hafid)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디지털부(Menkomdigi·멘콤디기) 장관은 최근 캘빈 쳉 언리(Calvin Cheng Ern Lee) 전 싱가포르 의원이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회선 차단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메우티아 장관은 인도네시아 대중에게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분노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지정학적 위치와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가 쥐고 있는 전략적 우위를 상기시켰다.

■ "싱가포르행 해저케이블, 인니 영해 거쳐야… 차단 시 싱가포르 용량 80% 마비"

메우티아 장관은 지난 2026년 10월 27일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해저광케이블(SKKL)의 물리적 경로가 지닌 전략적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싱가포르에 상륙하는 국제 해저광케이블의 대다수가 인도네시아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었다.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가 이번 논란에 대해 감정적으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한 뒤, "싱가포르에 도달하는 해저광케이블은 허공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며, 그 경로의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영해를 지나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약 해당 케이블 경로에 물리적인 차질이 빚어지거나 고의적인 차단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인도네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우티아 장관은 "만약 해저케이블이 절단되거나 고의로 차단된다면, 싱가포르가 보유한 전체 인터넷 연결성 용량의 약 80퍼센트 역시 즉각적으로 마비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의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물리적 인프라는 인도네시아의 영해 안정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 "인니는 싱가포르 47배 달하는 거대 시장… 빅테크 투자 유인책의 핵심"

해저케이블의 지리적 이점 외에도 메우티아 장관은 동남아시아 기술 생태계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압도적인 디지털 시장 규모를 또 다른 핵심 카드로 제시했다.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글로벌 기술 기업(빅테크)들이 궁극적으로 타깃으로 삼는 소비 시장은 바로 인도네시아라는 분석이다.

메우티아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싱가포르의 47배에 달하며, 현재 무려 2억 6,700만 명의 국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활발히 데이터를 소비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디지털 인구 규모를 배제할 경우, 싱가포르 내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투자 지속성 역시 심각한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장관은 "만약 인도네시아라는 거대한 시장 수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기술 기업의 투자자들이 싱가포르를 떠날 잠재적 위험이 매우 크다"고 역설하며, 양국의 디지털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 에너지 갈등에서 촉발된 SNS 설전… "디지털 인프라, 상호 위협의 도구 돼선 안 돼"

이번 외교적·기술적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26년 10월 25일 캘빈 쳉 전 싱가포르 의원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calvinelcheng)에 게시한 한 장의 인포그래픽에서 비롯됐다. 해당 자료는 인도네시아의 국제 인터넷 트래픽 중 약 90퍼센트가 싱가포르를 경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명하며,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인터넷망 접근이 싱가포르라는 거점에 깊이 의존하고 있음을 부각했다.

문제는 쳉 전 의원이 이 인포그래픽을 공유하며 "Cut?(차단?)"이라는 도발적인 단어를 덧붙이면서 불거졌다. 특히 이 게시물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싱가포르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량 일부를 감축하기로 결정한 이후, 양국의 에너지 관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올라와 파장을 키웠다. 에너지 공급 감축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의 인터넷망을 차단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해석되면서 양국 소셜 미디어상에서 격렬한 논쟁이 촉발된 것이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쳉 전 의원은 이후 후속 게시물을 통해 "싱가포르는 국제법을 존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메우티아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간 핵심 기반 시설을 볼모로 한 소모적인 위협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국가 간 통신망은 어느 한쪽의 무기가 아니라, 공동의 협력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 자산이라는 설명이다.

메우티아 장관은 "우리는 편협한 사고에 갇혀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 인프라는 상호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선 안 되며,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두 국가의 이익뿐만 아니라 글로벌 연결성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함께 보호해야 할 부문"이라고 강조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태는 자원 민족주의와 디지털 주권이 교차하는 현대 국제 정세 속에서, 인접국 간의 인프라 상호 의존성이 어떻게 외교적 지렛대로 작용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CGV | 2026년 11월 3일 ~ 9일

영화 그 이상의 감동

CINEMA Kids Club

인도네시아 최초!

지금 가입하고 바로 리워드를 받아보세요!

콤보 구매 시 50% 할인

영화 굿즈 10% 할인

KIDS FIELD TRIP 활동 15,000 루피아 할인

어린이 1인당 Rp30,000 팝콘 무료 제공 & 웰컴 키트 증정!

* 팝콘 버킷 1개
* 도시락 1개
* 무비 패스포트 1개

자세한 정보는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이번 주 상영!

10월 30일



*드라마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은퇴자가 인기 패션 회사의 인턴으로 다시 일하기로 결심한다. 유명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판 리메이크 작품.

11월 4일



*액션
*일본이 전쟁과 고질라의 위협에서 회복한 후, 새로운 위협이 등장해 그들의 희망을 순식간에 무너뜨린다.
*4DX 포맷 관람 가능

11월 6일



*애니메이션
*마법 모자를 쓴 고양이는 한 남매가 새로운 도시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주를 맡는다. 이 일주는 자신의 마법 모자를 영원히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마지막 기회다.

CGV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지금 예매하세요!

인니 정부, 미국의 무역 관세 최종 결정 대기 중… 아이르랑가 장관 "과잉 생산 능력 조사 결과 남아"

미국-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과 회동… 통상 현안 및 투자 애로사항 집중 논의
대미 교역 및 투자 급증 속, 루피아화 약세에는 "수출 경쟁력 제고 효과 있어, 시장 모니터링 지속"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관세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무역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간 상호무역협정(ART)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미국 측이 진행 중인 '초과 생산 능력(excess capacity)'에 대한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최종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자카르타 소재 집무실에서 미국-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US-ABC) 소속 미국 기업 대표단과 연이어 회동을 가진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상호무역협정(ART)을 통한 무역협정 논의는 본질적으로 최종 단계에 도달한 상태다. 그러나 협정의 최종 서명 및 타결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 조사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도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28일 면담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협상 완료 목표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우리는 현재 미국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아이르랑가 장관은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 중 하나임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Section 301)' 조사와 관련된 양자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 등 다양한 통상 이슈를 조명하고 제재할 수 있는 미국 무역 당국의 핵심 조사 정책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강제 노동(forced labor) 의혹을 비롯해 초과 생산 능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미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다행히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조사는 이미 마무리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조사를 진행한 다른 여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준 준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실제 관세율에도 반영되었다. 미국은 기준을 덜 준수하거나 아직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타 국가들에는 12.5%의 징벌적 수입 관세를 부과한 반면,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노동집약적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설명하며, "이제 남은 과제는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논의뿐이며, 이 문제 역시 조만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양국 무역 관계에 적용될 관세 규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확실성이 확보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미국 기업 대표단과의 만남에서는 관세 현안 외에도 양국 간의 괄목할 만한 교역 및 투자 성과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아이르랑가 장관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교역 규모는 이미 323억 4,000만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2%라는 견조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대(對)인도네시아 미국 투자 규모의 성장은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미국의 인도네시아 투자 실적은 3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실적인 3억 달러에서 무려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로써 미국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4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국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게 되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이러한 긍정적인 투자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 이른바 '병목현상 해소(디보틀네킹·debottlenecking)'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활발히 운영 중인 디지털, 항공우주, 제조업, 보건, 소비재 분야 등 총 11개 핵심 산업 부문의 미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투자 및 사업 확장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정부 측에 직접 전달했다.

이에 대해 아이르랑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 기업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고 있으며, 접수된 사안들은 향후 관련 부처 및 기관(K/L) 간의 긴밀한 교류와 조율을 거쳐 직접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인들을 향해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거나 특정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 언제든 제기해 달라.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자"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 OECD 기자회견

회의 말미에는 최근 외환 시장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루피아화 환율 변동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발표되었다. 최근 루피아화 가치가 하락하며 미 달러당 18,160루피아 선을 기록한 것과 관련하여, 아이르랑가 장관은 정부가 외환 시장의 역학 관계와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 방어를 위한 직접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일단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루피아화 평가절하 상태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루피아화 약세는 한편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산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하며, "수출 부문의 경우, 현재의 환율 흐름이 대외 경쟁력을 한층 제고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말로 브리핑을 매듭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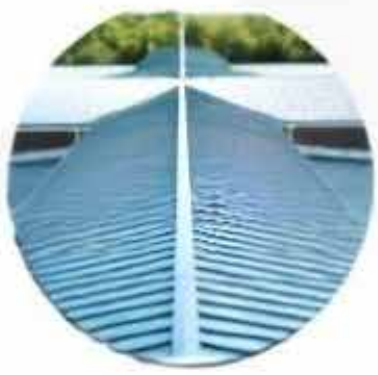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woori consulting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TALK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고객의 평가가
KPCM의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


WALLING & ACP


INTERIOR


ROOFING


CONSTRUCTION


FLOORING


WAREHOUSE


EPOXY & CONCRETE POLISHING


PANEL


MECHANICAL & ELECTRICAL

산업단지 개발, 공장 건축, 인테리어

공장 유지. 보수 관리 전문

SAMSUNG CJ HYUNDAI LOTTE Mart
ZINUS LocknLock LG EMSONIC
PT. Strawland ZIMMOAH
PT. PUNGKOOK INDONESIA OME PT. SERIM INDONESIA

KPCM

+62 811-9966-903 (Mr Han)
kpcidhan@gmail.com
kpcm.co.id

인도네시아 노동부, 2027년 주단위 최저임금(UMP) 초기 논의 11월 말 완료 목표… 인상률 산정 막바지 진통 예고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 "11월 마지막 주까지 부처 내 평가 마무리할 것"
적정생계비(KHL) 및 거시경제 지표 종합 고려… 노사정 협의체 거쳐 지역별 결정
노동계, "물가와 경제성장률 반영해 7.5~9.5% 인상해야" 강경 입장 고수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가오는 2027년도 주단위 최저임금(UMP)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노동부(Kemnaker)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부처 차원의 초기 논의를 오는 2026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다만, 노사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구체적인 인상률과 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야시에를리(Yassierli)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027년 주정부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 입장과 추진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본격적인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임금 결정 절차로 넘어가기에 앞서, 최소한 노동부 내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초기 평가와 논의를 11월 말까지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신의 뜻에 따라(인샬라) 11월 마지막 주에는 부처 내 기초 작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산정 및 결정 메커니즘을 조율하기 위해 거시경제 지표와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에 직결되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뜻하는 '적정생계비(KHL)'의 추정치를 정밀하게 산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회견에서 야시에를리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정부최저임금(UMP)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제화된 단계적 메커니즘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다는 설명이다.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노동부 내부의 초기 논의가 완료되면 해당 안건은 곧바로 국가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Nasional)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게 된다.

동시에 정부, 사용자, 근로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국가노사정협의체(LKS Tripartit Nasional)' 역시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다자간 협의에 착수한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와 가이드라인은 각 지역의 주(州)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Daerah)로 전달된다. 이후 지역임금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경제 여건과 노동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주지사가 최종적인 주정부최저임금을 확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UMP 결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확립된 제도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며 "중앙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임금 관련 전문 기관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단계적인 논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신중한 행보 속에 노동계는 이미 구체적인 인상률 수치를 제시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은 노동당과 연대하여 2027년 주정부최저임금을 현행 대비 7.5%에서 최대 9.5%까지 인상할 것을 공식 제안한 상태다.

사이드 익발(Said Iqbal) KSPI 위원장은 앞서 지난 10월 13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의 요구안이 철저히 법적 근거와 경제적 데이터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했다. 익발 주석은 해당 인상안이 최근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추이와 국가 경제 성장률, 그리고 현행 임금 산정 공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내년도 임금 결정 과정이 '2025년 정부 시행령(PP) 제49호'에 명시된 산정 공식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발 주석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특정 지수(알파 값)'를 기반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특정 지수의 범위가 0.5에서 0.9 사이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현시점의 거시경제 데이터만으로도 2027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 폭인 7.5~9.5%를 충분히 산출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다가오는 11월 말 노동부의 초기 논의가 완료되고 국가임금위원회 및 노사정 협의체의 본회의가 가동되면, 적정생계비(KHL)와 기업 지불 능력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경영계와 실질임금 보전을 위해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사이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중재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2026년 38개주단위 최저임금(UMP 2026).2025.12.29

www.zimmoah.com



AIR CONSOLIDATION

Incheon
Los Angeles
Daily
2 times / week
Jakar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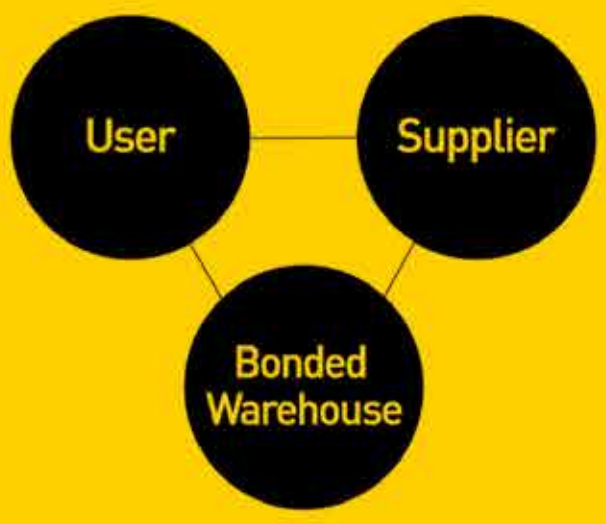
ZIMMOAH

Tel : +(62-21) 2936 5670 (ext 245)
E-mail : AIRcargo@zimmoah.com

LCL CONSOLIDATION



Bonded Warehouse
Biz Model



1. Trading Agency
2. Purchasing Agency
3. Consignment Agency

Tel : +(62-21) 2937 5670 (ext 231)
E-mail : LCLcargo@zimmoah.com

PT. RLC Indonesia

Direct : +(62)816 182 0317
E-mail : krchoi@rlc.co.id

ZIMMOAH

HEAD OFFICE
Kirana Commercial Avenue. Jl. Kirana Avenue 2 Blok D2 No. 10-11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 : +(62-21) 2937 5670 (Hunting) Fax : +(62-21) 2937 5671
E-mail : zimmoah@zimmoah.com www.zimmoah.com

BRANCH OFFICE

SEMARANG	+62 24 351 7198	semarang@zimmoah.com
AIRPORT	+62 21 5591 1853	aircargo@zimmoah.com
HOCHIMINH	+84 28 3776 0107	cargobuscm@cargobuslogitec.com
HANOI	+84 24 3221 6249	cargobushn@cargobuslogitec.com

IATA AIRLINES PARTNERS KOREAN AIR ASIANA AIRLINES Garuda Indonesia CHINA AIRLINES QANTAS ETIHAD AIRWAYS PARTNER Emirates

쉘, 인도네시아 주유소 사업 SEFAS 그룹에 공식 매각… 브랜드는 유지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Shell)이 인도네시아 내 주유소(SPBU) 사업의 소유권을 현지 기업인 SEFAS 그룹(SEFAS Group)에 공식 양도했다.

쉘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 30일 공식 성명을 통해 자사의 주유소 사업 부문을 SEFAS 그룹에 매각하는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거래에는 160개 이상의 직영 주유소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전역의 약 200개 주유소 네트워크와 유류 공급 및 유통 사업, 그리고 동부 자바 그레스익(Gresik)에 위치한 유류 터미널 시설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번 인수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 쉘의 소매 유류 사업 소유 구조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향후 해당 주유소 네트워크의 운영 및 통제는 SEFAS 그룹 산하의 PT 이슬라 에너지 인도네시아(PT Isla Energy Indonesia)가 전담하게 된다.

다만 사업 소유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현지 소비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쉘 브랜드와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양사가 체결한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쉘이 신규 운영사인 PT 이슬라 에너지 인도네시아에 브랜드 사용 권한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쉘 경영진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주유소 네트워크에서 쉘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고객들에게도 고품질 유류 제품이 변함없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인도네시아 내 주요 쉘 윤활유 유통업체로 잘 알려졌던 SEFAS 그룹은 이번 주유소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사업 영역을 대폭 확장하며, 국가 에너지 소매 유통 및 무역 부문에서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매각 대상에서 쉘의 인도네시아 윤활유 사업 부문은 제외되었다. 쉘은 현지 윤활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쉘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6년 9월, 연산 12킬로톤 규모의 그리스 제조 공장(Grease Manufacturing Plant) 가동을 시작하며 생산 역량을 확충한 바 있다. 이는 연간 최대 3억 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기존 브카시 마룬다(Marunda) 소재 윤활유 혼합 공장(LOBP)과의 시너지를 통해 현지 윤활유 시장 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쉘(Shell) 인도네시아 내 주유소(SPBU)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Weekly Global FX Market Monitor

2026.1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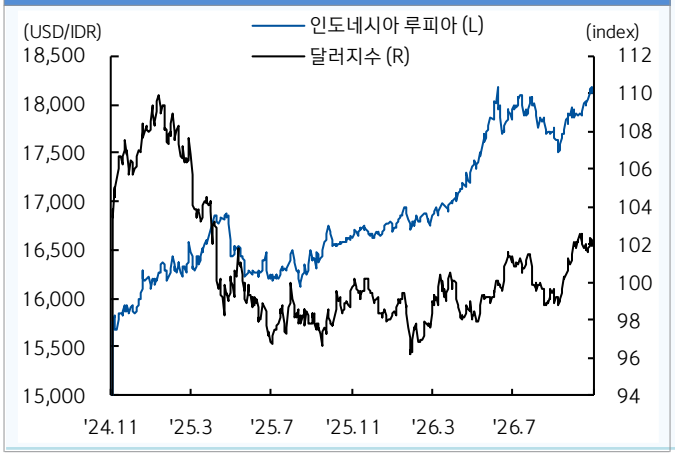
Indonesia

신한은행 S&T센터 소재용
02-2151-2638, jyso@shinhan.com

환율(USD/IDR)	18,127
52주최고	18,190
52주최저	16,614
주가(Jakarta index)	5,057
52주최고	9,174
52주최저	4,907
국채금리(10년물,%)	7.72
52주최고	7.72
52주최저	6.04
주요 경제 지표 Snap shot	
실질GDP성장률(%,YoY)	5.29
소비자물가(%,YoY)	3.28
생산자물가(%,YoY)	6.76
정책금리(%)	5.75
제조업 PMI (index)	52.4
산업생산(%,YoY)	1.66
소매판매(%,YoY)	1.40
수출(%,YoY)	6.72
수입(%,YoY)	19.09
경상수지(백만달러)	-12,487
재정수지(십억루피아)	-670,335
외환보유고(십억달러)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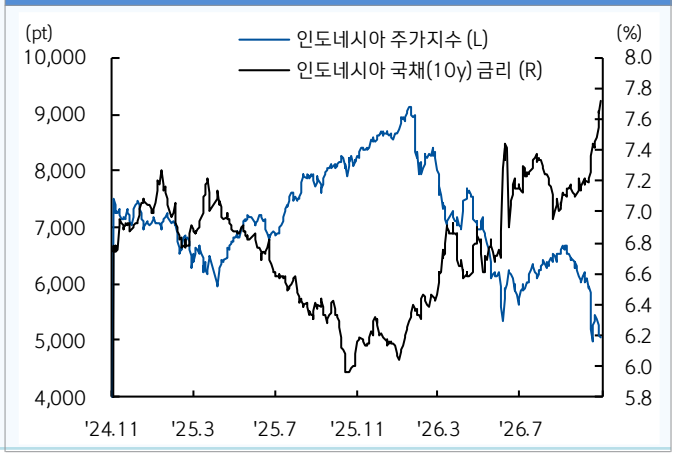
- 지난 주(10/26~30) USD/IDR(market rate)는 18,124~18,183 흐름(블룸버그 종가), 전주 대비 약세(-0.39%)
- FOMC 금리 동결 안도감과 AI 수익성 우려로 미달러가 등락을 보인 가운데 프라보워 정부의 재정 우려 다시 부각되며 인니 금융시장 혼란. 시장금리 급등세와 맞물려 증시 하락 및 루피아 환율 18,100선 돌파
- 외국인은 지난 주 5영업일 간(10/26~10/30) 인도네시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순매도 기록
  - 주식: 외국인 순매도(10/26~10/30 누적: 1억 6,845만 달러) 기록, 자카르타 주가지수 하락(-7.03%)
  - 채권: 외국인 순매도(10/26~10/29 누적: 9,512만 달러) 기록, 금리 상승(10y, 7.72%, 26.50bp)
- 무상급식 등 대규모 이전 지출 정책이 공론화되면서 프라보워 정부의 재정 안정 의지에 의구심 표명, 국채 입찰에서 목표 조달액에 못 미치는 응찰로 채권 시장 심리 냉각. BI의 시장개입으로 속도 조절 나섰으나 루피아 가치 하락
- 3Q GDP 5%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10월 CPI가 변수. 현재 시장에서는 3.30% 예상하고 있으나 상회시 BI의 금리인상 우려가 시장금리 상승을 자극하며 루피아 변동성 확대 소지(금주 예상 레인지 : 18,100~18,200)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과 달러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인도네시아 주가지수와 국채 금리추이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RE:BOOT Shinhan

YSM

YI SENG MIN & PARTNERS 법률사무소

소송.중재(Litigation.Arbitration)
민사소송.형사소송.파산소송.채무지불의무연기소송.행정소송.
노사분쟁소송.지식재산권소송.중재

기업법무(Corporate)
법률의견서.계약서.담보권설정.정관 개정.청산.철수.자문변호사

관재(Bankruptcy.PKPU)
파산관재.채무지불의무연기관재

투자(Investment)
법률실사.인수.합병.분리.차명투자.지분참여.현지법인설립.
대표사무소개설

부동산(Real Estate)
부동산실사.매매중개.임대차중개

자원 개발(Natural Resource)
광산실사.오일팜농장실사.인수.지분참여

가족법(Family)
상속.부부재산분리.혼인.이혼.입양

지식재산권(IPR)
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등록

공증 지원(Notarization Support)
공증 지원. 아포스티유(Apostille) 지원

사용언어(Language) : 한글.Bahasa Indonesia.English

Korea Center Building, 6th Floor, Suite 606,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12950
Tel. : (021)525-5959. 527-2422

대표변호사 이 승 민
YI SENG MIN, SH., MH.
Attorney at Law
MP. : 0816-1911-245
yisngmin@gmail.com

로산 인니 투자장관, "MSCI 여파에 따른 증시 동요에도 외국인 직접투자 신뢰는 여전히 견고"

포트폴리오 투자 유출과 달리 실물 경제 기반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순항 중
프라보워 정부 출범 후 2년간 투자 실현액 약 3,923조 루피아 달성…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



로산 퍼카사 로에슬라니 인도네시아 투자·하류화부 장관 겸 투자조정청(BKPM) 청장, Menteri Investasi dan Hilirisasi/Kepala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BKPM) Rosan Roeslani. (Foto: Rusman - Biro Pers Sekretariat Presiden)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의 시장 재평가 움직임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내 자본시장이 적잖은 변동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근본적인 신뢰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단기적인 증시 자금 흐름과 장기적인 실물 투자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투자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로산 퍼카사 로에슬라니 인도네시아 투자·하류화부 장관 겸 투자조정청(BKPM) 청장은 지난 2026년 10월 29일(목) 개최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2026년 전국지도자회의(Rapimnas)에 참석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로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께 감사하게도 인도네시아의 실질적인 투자 실현 측면은 여전히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를 향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는 흔들림 없이 매우 높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증시 자금 유출과 실물 직접투자의 차별성 강조

로산 장관은 최근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역학 관계가 인도네시아의 전체적인 투자 환경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자본 시장 내에서의 포트폴리오 투자(증권 투자)는 대외적인 압박을 받으며 일시적인 자본 유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실물 경제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여전히 긍정적인 성장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직접 투자가 지닌 본질적인 특성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이나 외부 변수에 따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매수와 매도 거래를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동성을 지닌다. 반면, 직접 투자는 현지에 대규모 생산 시설이나 공장, 광물 제련소 등을 직접 건설하는 과정을 수반하므로, 본질적으로 국가와 기업 간의 장기적인 약속 및 전략적 헌신과 직결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증시 동요가 장기적인 실물 투자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 투자 유치의 핵심 동력: '정치적 안정'과 '규제의 확실성'

로산 장관은 인도네시아를 향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가 단순히 자본 시장의 단기적 상황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정치적 안정과 국가 안보,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 환경의 확실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인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꼽았다. 여기에는 규제적 확실성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수익성 분석을 바탕으로 자본을 투입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로산 장관은 정부가 국가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시행되는 각종 규제들이 기업인들에게 명확한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과 투자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불확실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모든 비즈니스 환경은 측정 가능하고 구조화되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확실성(certainty)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프라보워 정부 2년, 괄목할 만한 투자 실적으로 증명된 신뢰

로산 장관은 이러한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들의 두터운 신뢰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달성한 구체적인 투자 실현 실적을 통해 명확히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조정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분기부터 2026년 3분기까지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가 달성한 총투자 실현액은 무려 3,923조 2,000억 루피아(원문 표기 기준 3조 9,232조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국내투자(PMDN)가 1,998조 7,000억 루피아, 외국인투자(PMA)가 1,924조 5,000억 루피아로 집계되어, 내외국인 투자 비율이 매우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수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5년 임기 전체 투자 유치 목표액인 13,032조 8,000억 루피아의 30.1%에 해당하는 성과다. 로산 장관은 과거의 실적과 비교하며 현 정부의 투자 유치 속도가 얼마나 가파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난 2년 임기 동안 전체 목표액 중 거의 4,000조 루피아에 육박하는 투자를 실현했다"며 "이것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로 유입된 총투자가 9,100조 루피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5년 임기 동안 13,032조 8,000억 루피아 달성이 기대되는 상황인 만큼, 이는 과거 10년의 추이와 비교할 때 확실히 매우 유의미하고 비약적인 증가세"라고 힘주어 말했다.

■ 2026년 3분기 누적 실적 호조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

단기적인 올해 실적 역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투자 실현액은 1,539조 2,000억 루피아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YoY) 7.3%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2026년 연간 목표액인 2,041조 3,000억 루피아의 75.4%를 이미 달성한 수치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투자가 실물 경제로 이어지면서 해당 기간 동안 총 219만 4,496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내며 고용 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올해 9개월간의 투자 구성을 살펴보면, 국내 투자(PMDN)가 761조 4,000억 루피아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고, 외국인 투자(PMA)는 777조 8,000억 루피아로 50.5%를 기록하며 외국인 투자가 근소하게 앞섰다. 국가별 외국인 투자 규모에서는 아시아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 홍콩이 각각 14억 달러와 12억 8,0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최대 투자국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 "단순한 약속 아닌 100% 실제 집행된 자금만 기록"

기사 말미에 로산 장관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이러한 투자 실현 수치들이 단순한 구두 합의나 양해각서(MoU) 체결 단계의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자금이 투입되어 집행된 '실현 투자액'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통계가 부풀려지지 않은 투명한 데이터라는 점을 시장에 확신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로산 장관은 "정부가 제시한 이 수치들은 100% 책임을 질 수 있는 실제 수치"라고 단언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만약 어떤 기업이 10조 루피아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실제 시공사를 운영하며 공사를 시작할 때 2조 루피아만 집행되었다면 우리가 통계에 기록하는 것은 오직 그 2조 루피아뿐이다. 그 다음 해에 3조 루피아가 추가로 집행되면 그때 그 3조 루피아를 기록하며, 이러한 엄격한 기록 방식은 그들이 약속한 투자를 완전히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설명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투명한 통계와 일관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실물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ratama 그룹 2026년 공채모집공고

PT. Pratama Abadi Industri 는 1989년 설립되어 36여년간 지속가능경영을 이어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인도네시아 단일기업으로는 Nike 운동화 최대 생산업체로, 연간 4천만족의 생산 Capacity 와 대규모 종업원을 보유하여 Tangerang, Sukabumi, Brebes 및 Garut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화 제조 관련 금형 등 자회사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 **사원 수 :** 43,000 여명

■ **설립일 :** 1989년

■ **업종 :** 신발제조업

■ **근무처 :** PRATAMA 그룹 (브레베스, 수까부미, 가룻)

■ **채용 분야 :**

- Bottom: IP, CP/CMP, Outsole, PU
- 생산: 재단, 재봉, 준비, 제화"

■ **채용 조건 :**

해당경력 10년 이상
인니어 가능자, 해외거주 경험

■ **희망 임금 수준 :** 채용 시 협의

■ **가족동반 여부 :** 가족동반자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주택, 자녀학자금, 의료비 지원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 **제출기한 :** ASAP

■ **서류 제출처 및 문의처 :** kb.lee@pratama.net

■ **선발 절차 :**

- 서류전형
- 실무면접
- 경영진 면접
- 건강검진

■ **근무요일/시간 :** 주 5일((생산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7:00 ~ 17:00

■ **지원 방법 :** 이력서 이메일 발송

인도네시아,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교환 협정(GIR MCAA)' 공식 서명… 2027년부터 40개국과 기업 과세 정보 공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원천 차단…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 행보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장, 제13차 권한 당국 회의서 선언문 서명
한국 · 일본 · 싱가포르 등 이어 41번째 서명국 등극… 15% 실효세율 이행 뒷받침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제 조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 체제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JP)은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 교환을 위한 다자간 권한 당국 간 협정(GIR MCAA)'에 공식 서명하고, 오는 2027년부터 전 세계 주요 40개국과 글로벌 기업의 납세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지난 10월 30일(금) 공식 발표를 통해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국세청장이 몬테네그로에서 열린 '제13차 권한 당국 회의(The 13th Competent Authorities Conference)'에 참석해 GIR MCAA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 체결은 글로벌 조세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원 관리와 감시망을 대폭 강화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략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지난 10월 30일(금)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국세청장이 몬테네그로에서 열린 '제13차 권한 당국 회의(The 13th Competent Authorities Conference)'에 참석 (Foto: Dok. DJP Kemenkeu RI)

■ 'GIR MCAA' 서명… 다국적 기업 과세 정보 한눈에 파악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서명한 'GIR MCA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이하 GloBE)의 실질적인 이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다자간 협정이다. 이 협정은 각국 과세 당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 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이하 GIR)'를 상호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표준화된 신고 서식인 GIR에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지배구조 및 내부 데이터는 물론, 해당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 및 관할 구역에서의 운영 활동 위치, 발생 소득, 납부 세액, 그리고 관할 구역별 실효세율 계산 내역 등 방대한 재무 및 세무 정보가 상세히 기재된다.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은 향후 이 정보를 파트너 국가들과 자동으로 주고받음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납세 의무 이행 현황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세율이 낮은 이른바 '조세 피난처'나 저세율 국가로 막대한 이익을 부당하게 이전(profit shifting)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잠재적 조세 회피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협정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글로벌 최저한세(GMT)'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지난 10월 30일(금)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국세청장이 몬테네그로에서 열린 '제13차 권한 당국 회의(The 13th Competent Authorities Conference)'에 참석 (Foto: Dok. DJP Kemenkeu RI)

■ 90개국 과세 당국 수장 모인 글로벌 포럼… "정보의 '활용'과 '결과'가 핵심"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장의 이번 서명은 지난 2026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개최된 제13차 권한 당국 회의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조세 목적의 투명성 및 정보 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과 몬테네그로 과세 당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회의는 노비카 부코비치(Novica Vukovi) 몬테네그로 재무부 장관과 마리아 호세 가르데(Maria José Garde) 글로벌 포럼 사무국장의 공동 개회사로 막을 올렸으며, 전 세계 90개 관할 구역의 국세청장 및 고위 세무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공식 자료를 통해 "이번 글로벌 포럼은 국가 간 조세 정보 교환을 책임지는 각국의 고위 관료들이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국제 조세 과제를 논의하며, 협력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는 뜻깊은 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회의의 핵심 세션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보 교환의 기여도를 과세 당국 수뇌부의 관점에서 가시적이고(visible), 측정 가능하며(measurable), 의미 있게(meaningful)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화두가 던져졌다.

비모 청장은 성명을 통해 해당 세션을 관통하는 세 가지 주요 메시지를 강조했다. 첫째, 국가 간 정보 교환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주고받은 요청 건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실제로 달성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단순히 교환되는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세무 행정에서 유효하게 '활용되는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정보 교환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일련의 행정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세 행정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모 청장은 이번 국제 논의의 핵심 가치를 ▲협력 ▲투명성 ▲정보 ▲준수(compliance) ▲영향력 등 5가지 키워드로 압축해 설명했다.

■ 국경 없는 조세 징수 네트워크 구축… "해외 자산 은닉 더 이상 안 통해"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단순한 데이터의 교환을 넘어, 실질적인 '국가 간 조세 징수'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확대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금융 시장의 세계화로 국가 간 자본 및 자산의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징수 단계에서의 국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비모 청장은 조세 회피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조세 징수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30일 발표된 성명에서 "인도네시아는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포럼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경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정당한 조세 징수가 중단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모든 국가가 함께 확실한 조치를 취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모 청장은 당국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공고해짐에 따라, 납세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관행은 더 이상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자산 이전이 손쉬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고리가 끊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 한국 등 40개국 이어 41번째 서명국… 국내 과세 메커니즘 이미 본격 가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26년 10월 1일 자로 발표한 공식 명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앞서 이미 한국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호주 등 총 40개 국가 및 관할 구역이 GIR MCAA 서명을 완료했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동참으로 서명국은 총 41개 관할 구역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7년부터 이들 파트너 국가들과 자동으로 GIR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완벽한 이행을 위해 이미 국내 법제 정비를 마치고 세 가지 핵심 과세 메커니즘을 순차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국제 합의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에 관한 재무부령(PMK) 제136/2024호'에 근거한 세 가지 메커니즘은 ▲적격 국내 최저한세(QDMTT) ▲소득산입규칙(IIR) ▲실효세율 미달소득규칙(UTPR)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인도네시아)이 GloBE 규정에 따라 타국에 과세권을 뺏기지 않고 자국 내에서 우선적으로 추가 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IR(Income Inclusion Rule)'은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 세액만큼을 최종 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모기업에 추가 과세(top-up tax)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UTPR(Undertaxed Payment Rules)'은 IIR을 통해서도 과세되지 않은 잔여 미달 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강력한 안전장치다.

국세청 기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이미 지난 2025년 1월 1일부로 QDMTT와 IIR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이어 2026년 1월 1일부터는 UTPR까지 전면 시행에 돌입했다. 이번 GIR MCAA 서명을 통해 2027년부터 해외 과세 정보까지 원활히 유입되면,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 체계는 사실상 완전체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System Ever Indonesia | 영림원소프트랩

더 튼튼한 기반,
더욱 크게 성장한
비즈니스

- 회계 (Accounting)
- 생산 (Manufacturing)
- 재고 (Inventory)
- 급여 (Payroll)
- 보세구역 (Bonded Zone) 지원까지

비즈니스 규모에 따른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제공합니다.

지금 상담하세요! →



+62 811-1997-1017
www.systemever.co.id

프라보워 대통령, '4선 성공'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 축전…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기대"


Presiden Prabowo dalam pernyataan pers bersama Presiden Brasil Luiz Inácio Lula da Silva pada Rabu, 9 Juli 2025 di Istana Planalto, Brasilia. Foto: BPMI Setpres/Muchlis Jr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브라질 대통령은 7월 9일(현지 시각) 브라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하며 통산 네 번째 임기를 확정 지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자신의 공식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룰라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공식 메시지를 게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역사적인 성과이자 룰라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브라질 국민들의 두터운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나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룰라 브라질 연방공화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4선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룰라 대통령이 강건한 모습으로 브라질을 이끌며 국가적 번영을 이룩하기를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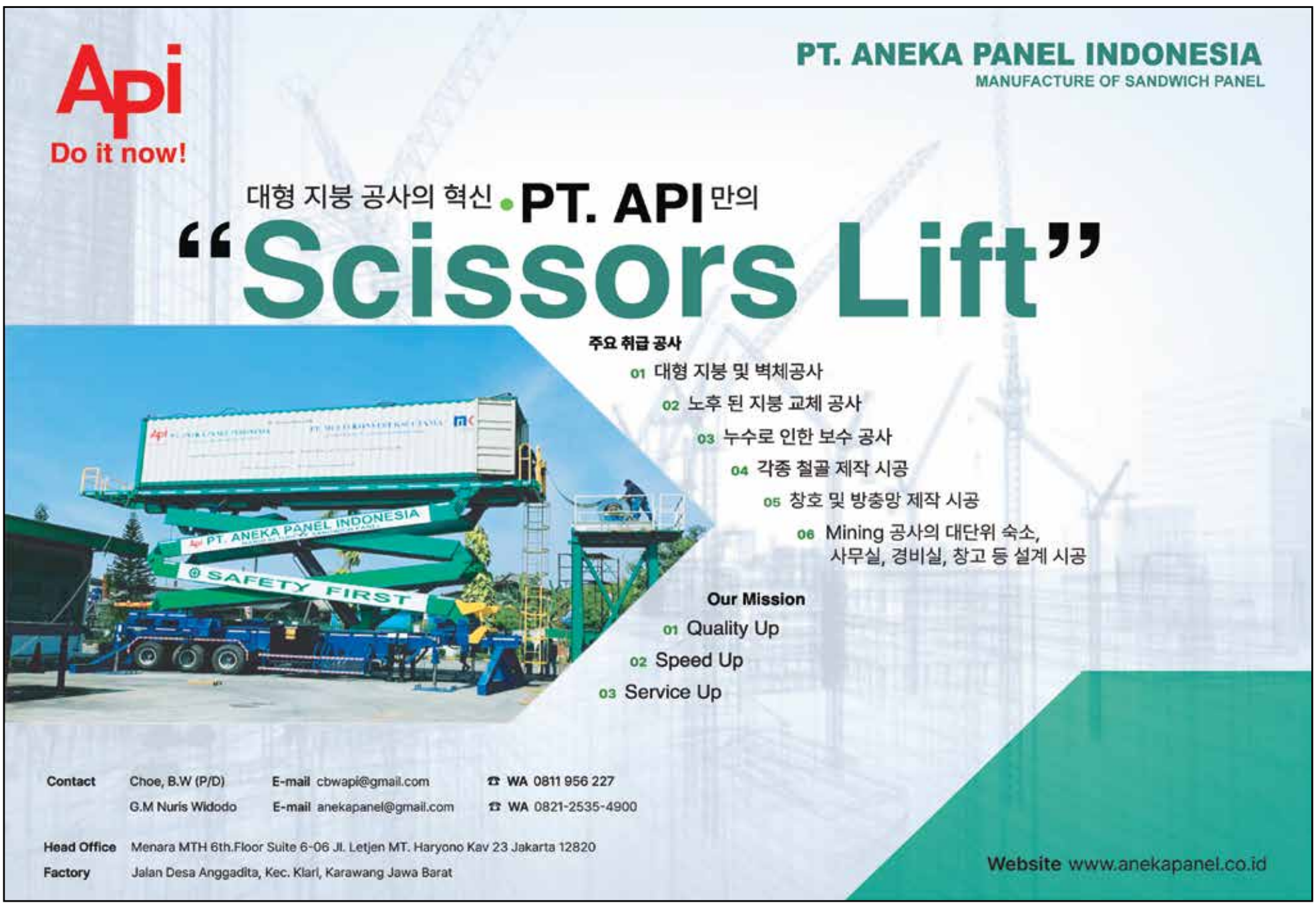
아울러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양국 관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 속에서 양국의 우호 증진과 공조를 제안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거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들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두 민족 간의 깊은 우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룰라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경쟁자인 플라비우 볼소나루 후보를 꺾고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현지 언론에 보도된 공식 개표 결과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유효 투표수의 51.76%를 득표해 48.24%를 기록한 볼소나루 후보를 3.52%포인트 차로 제쳤다. 비교적 근소한 득표율 격차는 이번 대선 경쟁이 막판까지 매우 치열했음을 보여준다. 상대 후보였던 플라비우 볼소나루는 브라질 상원의원이자 자이르 볼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

이번 대선 결과는 브라질 정치사에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과거 두 차례의 연임(2003~2010년)과 2023년 재집권에 성공했던 룰라 대통령은 이번 승리로 통산 네 번째 대통령 임기를 맞이하게 됐다. 특히 그는 1차 투표에서 볼소나루 후보에게 우세를 내주며 2위에 머물렀으나, 결선 투표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펼쳐냈다. 이로써 룰라 대통령은 1989년 브라질에 대선 결선 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1차 투표의 열세를 뒤집고 최종 당선된 최초의 후보라는 진기록도 함께 세우게 됐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가야성 중화요리
Ga Ya Sung
중화 요리 전문점
Since 1997

가야성에서 준비한

알곤이 짬뽕

톡톡 터지는 알과 부드러운 곤이
깊고 얼큰한 해물 짬뽕



예약 문의
081295094658

Ga Ya Sung | Grand Wijaya Center Blok F No. 48 | Jakarta Selatan

프라모노 주지사 및 자크로, 신태용 감독의 JIS 잔디 불만에 “즉각 개선할 것”

프라모노 안둥(Pramono Anung) 자카르타 자치주 주지사와 경기장 운영사인 PT 자카르타 프로페르틴도(Jakpro, 이하 자크로)가 자카르타 국제 스타디움(JIS)의 잔디 상태에 대한 축구계의 지적을 수용하고 즉각적인 개선 작업을 약속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26일(월) 열린 슈퍼리그 경기 직후 제기됐다. 당시 페르시크 케디리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둔 페르시야 자카르타의 신태용 감독과 주장 리즈키 리도는 JIS의 잔디 품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신 감독은 그라운드 표면 상태가 양 팀의 플레이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불량한 잔디는 공의 흐름과 패스의 정확도, 전술 수행 능력 등 경기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음 경기는 더 나은 환경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 주체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프라모노 주지사는 27일(화) 북자카르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잔디 상태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그는 “이완 타크윈 자크로 사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완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프로 축구 리그의 표준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술적인 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다만 프라모노 주지사는 비체육 행사 이후 잔디 복구 기간이 대폭 단축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콘서트 등 대형 행사 후 잔디를 복구하는 데 2~3개월이 소요됐으나, 이번에는 단 일주일 만에 경기를 치를 수 있을 만큼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며, 일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복구 시간 단축 자체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경기장 관리 주체인 자크로의 이완 타크윈 사장 역시 현장의 비판을 건설적인 조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완 사장은 개폐식 지붕을 가진 JIS의 구조적 특성상 햇빛 유입이 제한적이어서 잔디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프레시자 자카르타(Persija Jakarta)의 신태용 감독

현재 자크로는 자체 잔디 묘목장을 활용하고, 잔디를 말았다가 펴는 ‘롤링 및 레이잉’ 공법과 정교한 예초 방식을 도입해 적용 중이다. 이완 사장은 “이러한 혁신을 통해 잔디 뿌리의 결속력이 강화되어 이번 경기에서는 잔디가 쉽게 뽑히는 현상이 최소화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최상의 그라운드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관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RESENTED BY btn
그때 그 노래, 다시 만나는 우리들의 청춘!
7080
추억의 밤
JAKARTA LIVE CONCERT
잊고 지냈던 친구, 첫사랑, 그리고 그 시절의 노래들...
당신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합니다!
TICKETS ARE AVAILABLE AT
LOKÉT
건아들
젊은 미소
남궁옥분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현 숙
정말로 / 요즘 여자 요즘 남자
홍서범
MC & OXEN 80
권성희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조갑경
바보 같은 미소
7 NOV SAT 19:00
OPEN GATE 18.00
VENUE:
THE BALLROOM AT
PLAZA SENAYAN (LT. P5)
OXEN'80
WITH 3 PROFESSIONAL BACKING VOCALIST
SUPPORTING THE NEXT GENERATION
RP 200,000,000
SCHOLARSHIP SUPPORT FOR KOREAN STUDENTS
LUCKY DRAW
RP 100,000,000 IN TOTAL PRIZES
PROMOTER BY APGM
OFFICIAL ENERGY DRINK HONGSAM BALL
EVENT ORGANIZER SINERGI SUARA INDONESIA

국가영양청, '무료 영양 급식' 집단 식중독에 철퇴… 피해자 1천 명 넘어

- 보고르·찌르본 지역 대규모 식중독 발생에 SPPG 소장 해임 및 운영 중단 조치
- 수다리오노 청장 "완제품 식재료 무단 사용 정황 포착… 과실 입증 시 주방 영구 폐쇄 등 무관용 원칙 적용"



국가영양청이 시행중에 있는 무상급식 (FOTO:Dok. Istimewa).

국가영양청(이하 BGN)이 최근 서부 자바주 일대에서 발생한 '무료 영양 급식(MBG)' 프로그램 관련 대규모 집단 식중독 의심 사건에 대해 고강도 제재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BGN은 수백 명의 학생이 급식 섭취 후 건강 이상을 호소함에 따라 서부 자바주 찌르본(Cirebon)시 칼리자가 영양공급서비스 유닛(SPPG) 소장을 전격 해임하고, 보고르(Bogor)군 소재 'SPPG 드라마가 4'의 운영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지역들에 긴급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총 1,0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찌르본시에서는 MBG 급식을 섭취한 426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료 조치를 받았다. 보고르군에서는 짧은 시차를 두고 두 건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찌사루아(Cisarua) 지역에서 120명, 드라마가(Dramaga) 지역에서 481명의 환자가 발생해 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수다리오노 BGN 청장은 28일(2026년 10월 2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수다리오노 청장은 "보고르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매우 슬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보고르 군수 및 경찰서장, 군부사령관 등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BGN 조사단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급식소 측의 '외부 가공 완제품 식재료' 사용 여부다. 신선한 원재료를 구매해 직접 조리하는 대신 이미 가공된 식재료를 납품받아 사용함으로써, 위생 상태와 식품 적합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수다리오노 청장은 "찌르본의 주방에서는 언제 삶아지고 껍질이 벗겨졌는지 알 수 없는 완제품 메추라기 알을 구매했고, 보고르에서는 제조 시점과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완제품 땅콩 소스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절한 감독 없이 가공식품을 구매한 행위는 심각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BGN은 조사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수다리오노 청장은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고의적인 과실이 드러날 경우 주방 소유주가 누구든 상관없이 해당 SPPG 주방을 영구 폐쇄하고, 소장을 비롯한 영양사, 재무 담당자 등 관련 인력을 모두 해고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끝으로 수다리오노 청장은 모든 SPPG 운영자들에게 식품 안전 기준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며, "무료 영양 급식(MBG)의 본질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다.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어떠한 과실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BGN은 현재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정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살기좋은 정주여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유턴하세요.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가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역할

기업 맞춤형 투자 상담	인센티브 정보 제공
조세 정보 제공	부지선정 정보 제공
행정적 지원 제공	사업파트너 발굴 지원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정보부터 행정지원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대표번호 : 051) 979-5000

10월 28~29일 자카르타 도심 대규모 연대 시위… 대학생·노동자·농민 한목소리로 '5대 요구안' 천명

'청년의 날' 맞아 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 집결… 프라보워-기브란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에 날 선 비판 시민 불복종 운동까지 예고하며 정부 압박… 경찰 당국, 도심 교통 통제 및 시민 협조 당부



Mahasiswa Aksi Demo Indonesia Gelap Padati Patung Kuda

인도네시아의 역사적인 기념일인 '청년의 날(Hari Sumpah Pemuda)'을 맞이하여 수도 자카르타 도심 한복판에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대규모 연대 시위가 막을 올렸다.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양일간 예정된 이번 집회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그리고 광범위한 시민사회 단체가 대거 동참하면서 범국민적 저항 운동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대규모 시위는 인도네시아대학교 총학생회(BEM UI)를 주축으로, '국민주권수호위원회(SADAR)' 소속 대학생 연합체 및 다수의 시민사회 그룹이 연대하여 기획되었다. 집회 첫날인 28일, 중앙자카르타의 상징적인 공간인 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Bundaran HI) 일대는 각계각층에서 모여든 시위 인파로 가득 찼다.

2026년 BEM UI 지도부는 이번 집회의 공식 명칭을 '#인도네시아의식화(#IndonesiaSadar)'로 명명하고, 시위의 본질이 특정 집단의 이익 대변을 넘어선 전 국민적 각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BEM UI 측은 현장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에서 진행되는 시위는 단순히 대학생들만의 목소리를 내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대학생과 노동자, 농민, 그리고 주권을 가진 모든 국민 구성원이 하나로 뭉쳐 국가의 위기를 논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시위의 장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 환경부터 민주주의까지… 정부 향한 '5대 핵심 요구 사항' 발표

'#IndonesiaSadar' 시위대는 현 인도네시아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재난 대응, 경제 정책, 교육 및 노동, 법치 개혁, 그리고 인권(HAM) 및 민주주의 보호를 아우르는 '5대 핵심 요구 사항'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학생 연합과 시민사회가 규정한 5대 현안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첫째, 환경 및 재난 관리 분야에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다. 시위대는 작금의 환경 위기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 파괴와 재난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오랜 기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온 토지 관리 체계의 통합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포퓰리즘 정책의 폐기다. 시위대는 국가예산(APBN)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영양급식프로그램(MBG)과 KDMP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 민생 안정과 기초 복지 확대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비를 인하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초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조속히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넷째, 법치주의의 회복과 부패 척결이다. 시위대는 정권 유지를 위해 법 집행 기관을 동원하는 권력 남용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패·정실·관치(KKN)가 현 정권 들어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사정 작업과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다섯째,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인권 보장이다. 최근 위축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과거 및 현재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워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시위대는 시민사회의 공론장과 일상 공간에 군 병력이 개입하는 이른바 '시민사회 공간의 군사화' 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 프라보워-기브란 정부 집권 2년 차 심판론 대두… '시민 불복종' 가능성 시사

이번 시위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 부통령의 집권 2년 차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BEM UI를 비롯한 시위 주도 세력은 지난 시간 동안의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낙제점을 부여하며 비판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학생 연합 측은 프라보워-기브란 정부가 출범 당시 대대적으로 내걸었던 핵심 공약들, 특히 청년층과 노동계층이 가장 기대했던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관한 약속들이 전혀 기대만큼 이행되지 않았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오히려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인해 국가 재정만 악화되고 서민 경제는 더욱 피폐해졌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더 나아가 BEM UI는 이번 시위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학생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사회 각계가 피땀 흘려 제기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과거처럼 형식적인 답변이나 미봉책으로만 일관할 가능성을 학생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우리의 5대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후 더욱 강도 높은 추가 시위는 물론, 납세 거부나 총파업 등을 포함한 전면적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 형태의 행동까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혀,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정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 경찰 당국, 도심 교통 혼잡 대비 비상 근무… "공익과 집회의 자유 조화 이루어야"

한편, 수만 명의 인파가 자카르타의 핵심 교통 요충지인 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로 집결함에 따라 치안 및 교통 당국도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메트로자카르타 지방경찰청(Polda Metro Jaya)은 이번 연대 시위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인 의사 표현 활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집회가 일반 대중의 공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당국은 평화롭고 질서 있는 집회 관리를 위해 현장 경찰관과 시위 참가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시위가 진행되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자카르타 도심의 극심한 교통 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은 시민들에게 사전 교통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 및 수디르만-탐린(Sudirman-Thamrin) 대로 주변을 통과할 예정인 운전자들은 메트로자카르타 경찰청 교통관리센터(TMC)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tmcpoldametrojaya)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 상황 업데이트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동 전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하여 구역별 혼잡도를 파악하고 사전에 우회 경로를 설정할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의 행진 경로와 인원 규모에 따라 주요 도로의 통제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통행 가능한 우회 경로를 통해 이동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교통 통제 및 차량 우회 조치가 시행될 경우, 도로 위의 시민들은 현장 교통 경찰관의 안내와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청년의 날을 기점으로 폭발한 대학생과 노동자, 농민들의 연대 시위가 집권 2년 차를 맞이하는 프라보워 정부의 국정 동력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인도네시아 전역의 이목이 자카르타 도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SIAL FOOD & DRINKS Indonesia
Co-located with
FOOD TRANSPORT & LOGISTICS EXPO Indonesia

YOUR GATEWAY TO A B2B FOOD PLATFORM IN INDONESIA

4 - 6 NOVEMBER 2026

JIEXPO KEMAYORAN — JAKARTA
INDONESIA

EXHIBITOR PROFILE


Food Processing & Packaging Technology


Chilled & Frozen Food


Convenient & Ready to Eat Food


Cereals, Edible Fruit & Nuts


Sweet & Confectionery


Beverages


Alcoholic Beverages


Coffee & Tea


Oil, Spices & Condiments


Others

PRIMARY VISITOR PROFILE

- Distributors/ Agents/ Wholesalers
- Institutional Catering
- Hotels/Resort/ Country Club
- Convenience/ Grocery
- Fast Food/Cafes/ Restaurant Services
- F&B Management Services/ Consultancy
- Stores/ Supermarkets/ Hypermarkets
- Importers & Exporters
- Retail/E-commerce

IMMERSE YOURSELF IN THE ULTIMATE SHOW FLOOR EXPERIENCE

Step beyond the exhibition booths and dive straight into the heart of industry action. Our dynamic show floor is designed to ignite inspiration, showcase breakthrough innovations, and connect you directly with global culinary masters through our exclusive feature programs:

- SIAL CULINARY MASTERS ASIA
  Discover culinary expertise and mastery.
- TALKSHOW, SEMINAR, PANEL DISCUSSION
  Gain market insights from industry experts.
- INDONESIA BARISTA CHAMPIONSHIP 2026/2027: NATIONAL ROUND
  Watch top professionals compete in coffee making.
- BUSINESS MATCHING
  Dedicated sessions to forge powerful strategic partnerships.
- SIAL INNOVATION
  Explore the future of food trends and groundbreaking products

One Pass for Two Shows

Indonesia Food Transport & Logistics Expo will focus on connecting food & beverage businesses with the transport, logistics, and cold chain solutions



SCAN ME!
GET YOUR FREE PASS

ORGANISED BY
7seven
COMEXPOSIUM

MEDIA PARTNER
HANIN POST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경찰청, 산불 및 토지 화재 혐의로 20개 법인 무더기 입건… 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투자 기업도 포함

총 104건의 경찰 보고 및 여의도 면적 100배 달하는 2만 9천여 헥타르 피해
외국계 기업 4곳 및 현지 기업 16곳 법인 피의자 전환… 97건 수사 격상으로 추가 입건 예고
환경보호법 위반 적용, 최고 징역 5년 및 15억 루피아 벌금형 직면



폰티아나의 칼리만탄부(Ⅾ) 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경찰청(Polri)은 산불 및 토지 화재(카르훗라) 혐의로 20개 기업을 피의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Dok. Youtube Polda Kalbar)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및 토지 화재(현지명 카르후틀라·Karhutla) 사건을 수사 중인 인도네시아 경찰 당국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계 투자 기업 등 총 20개 법인을 피의자로 공식 입건했다. 당국은 개인을 넘어 법인 차원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수사망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국내외 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셉 사프루딘(Asep Safrudin)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바레스크림·Bareskrim) 국장은 2026년 10월 29일(목), 서칼리만탄주 폰티아나크에 위치한 칼리만탄바랏 지방경찰청에서 산불 법 집행 관련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셉 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산불 및 토지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단순 개인 피의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각 기업의 조업 구역 내에서 발생한 화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는 법인 자체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환경 범죄에 있어 기업의 관리 감독 소홀과 구조적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사법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의 종합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산불 사건과 관련하여 기업 연루 의혹이 제기되어 접수된 경찰 보고(LP)는 총 104건에 달한다. 해당 보고들에 연루된 피해 화재 면적은 무려 29,168.78헥타르(약 2억 9,168만 ㎡)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약 290헥타르)의 약 100배에 달하는 광활한 규모다.

아셉 국장은 "총 29,168.78헥타르에 달하는 막대한 면적을 태운 104건의 경찰 보고와 관련하여, 우리 수사국은 20개 기업을 공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이번에 입건된 대상은 개인이 아닌 20개의 법인 피의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조치가 환경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법 집행 절차의 일환임을 거듭 역설했다.

■ 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3개국 4개 외투기업 포함… 구체적 피해 면적 공개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피의자로 전환된 20개 법인 중 4곳이 외국인투자기업(PMA)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셉 국장은 "입건된 기업 중 4개사는 외국 자본이 투입된 기업이며, 나머지 16개 법인은 인도네시아 국내 자본으로 운영되는 내국인투자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공개한 세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로 입건된 4개의 외국계 기업은 싱가포르 자본 기업 2곳, 말레이시아 자본 기업 1곳, 그리고 한국 자본 기업 1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외국계 법인의 이니셜과 이들과 연관된 구체적인 화재 피해 면적은 다음과 같이 확인됐다.

▲ PT RKA (말레이시아 PMA) : 화재 면적 2,157헥타르 ▲ PT HKI (싱가포르 PMA) : 화재 면적 987헥타르 ▲ PT AI (싱가포르 PMA) : 화재 면적 421헥타르 ▲ PT API (한국 PMA) : 화재 면적 351헥타르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 말레이시아 투자 법인인 PT RKA가 가장 넓은 2천 헥타르 이상의 피해 면적을 기록했으며, 한국 투자 법인인 PT API 역시 351헥타르에 달하는 산림 및 토지 소실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피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16개 인도네시아 국내 법인은 ▲PT BOS ▲PT AER ▲PT SKM ▲PT WLJ ▲PT SAE ▲PT BSLT ▲PT CGUK ▲PT FSL ▲PT BPK ▲PT PW ▲PT BWL ▲PT MIB ▲PT STP ▲PT JMS ▲PT RAS ▲PT MAS 등으로 발표됐다.

■ 수사 단계 격상된 97건 중 외투기업 22곳 식별… "피의자 수 계속 늘어날 것"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수사가 현재 발표된 20개 기업의 입건에서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선 수사관들은 산불 및 토지 화재와 관련해 기업 연루 혐의가 포착된 여타 보고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셉 국장은 이날 기업이 연루된 전체 산불 사건의 수사 진행 현황도 상세히 공개했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총 104건의 기업 관련 보고 가운데, 무려 97건이 기초 조사를 마치고 정식 '수사 단계'로 격상된 상태다.

이처럼 수사망이 좁혀지는 과정에서 경찰은 외국인투자기업(PMA) 지위를 가진 총 22개 기업을 수사 선상에 올려 식별해냈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 인접국은 물론 주요 선진국 자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9개사 ▲말레이시아 8개사 ▲영국 2개사 ▲중국 1개사 ▲일본 1개사 ▲한국 1개사 등이 수사 대상인 97건의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아셉 국장은 "외국계 2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75개 조사 대상 법인은 내국인 투자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라고 부연했다.

경찰 당국은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 법인 피의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셉 국장은 "법인 피의자의 수는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절차에 발맞추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주저 없이 다른 기업들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산불·초지화재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20개 법인 목록. (Dok. YouTube Polda Kalbar)

■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환경 파괴… 최고 징역 5년 및 15억 루피아 벌금 직면

아셉 국장은 브리핑 말미에 이번 사건에서 법인 피의자들이 저지른 구체적인 범행 수법(모드스 오페란디·Modus Operandi)과 적용 법조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찰이 파악한 법인들의 주요 혐의는 기업의 이익이나 관리 소홀을 배경으로 한 법령 위반이다. 아셉 국장은 "법인 피의자들이 저지른 범행 수법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환경 보호 및 관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심각한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연무 등으로 인체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으며, 결과적으로 대규모 토지 화재를 야기한 행위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통상 인도네시아에서는 팜유 농장이나 목재 플랜테이션 개간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소각을 감행하거나, 건기 중 화재 예방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대형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산불 사태에 연루되어 입건된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현행 '2009년 제32호 법률(환경 보호 및 관리법)'에 의거해 강력한 사법 처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해당 법률 제98조 제1항·제2항·제3항(고의에 의한 환경 기준 초과 및 파괴), 제99조 제1항·제2항·제3항(과실에 의한 환경 기준 초과 및 파괴), 그리고 제108조(토지 개간을 위한 불법 소각 행위)를 핵심 적용 법조로 적시했다.

아셉 국장은 "해당 법률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최저 3년에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동시에 최저 3억 루피아(한화 약 2,600만 원)에서 최고 15억 루피아(한화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발언을 마쳤다. 법인이 피의자인 경우,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경영진이 징역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 자체에는 막대한 벌금과 함께 조업 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산불과 그로 인한 국경 간 연무(Haz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의 환경 법규 준수 및 화재 예방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시급한 시점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환자분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원"

미르 한의원
MI-REU CLINIC
신속한 효과 • 세심한 진료

■ 진료과목
– 목,허리통증및 디스크
– 어깨,무릎,팔,다리 관절및 근육통
– 소화기,호흡기,심혈관 질환
– 성장탕,총명탕(수험생)
– 허약체질,피로회복,면역강화
– 갱년기,자궁근종,갑상선,일체냉증
– 화병,우울증,공황장애

진료시간
월–금 9:30~6시
토요일 10:30~4시
점심 : 12시~1시
일요일,공휴일 휴무

085694537974
INDO-TCM
미르한의원
(Mireu-tcm)
TALK
Mireu-tcm

Grand Wijaya Centre Blok C 37 Lantai 1
Jl. Wijaya II, Kel. Pulo, Kec.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2028년 할랄 의무화 시행 예정 인도네시아, ‘트렌디·프리미엄·할랄 K-푸드·씨푸드’로 선제 대응!

aT, 2026년 다부처 협업 K-브랜드 해외 농수산식품 홍보관 운영 성료



K-푸드 서포터즈 해단식 및 수상식. 자카르타 2026년 10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롯데몰 KOREA 360에서 8~10월 3개월간 개최한 K-브랜드 해외 농수산식품 홍보관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K-브랜드 해외 농수산식품 홍보관’은 ‘8월 트렌디, 9월 프리미엄, 10월 할랄’을 월별 테마로 지정, 매달 다양한 한국산 농수산식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다채로운 테마별 홍보행사로 운영되었다. ▲ 한국 농수산식품 특판행사 ▲ 스타셰프 라이브쿠킹쇼 ▲ 대형 비빔밥·릴레이 소떡소떡 만들기 ▲ 진짜 한국산 농수산식품 맞추기 퀴즈 ▲ 한·인 유명 아티스트 공연 등과 더불어 별도의 쿠킹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한국산 식재료 활용 요리교실 등 한국산 농수산식품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행사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10월 24일에는 한국 K-POP 아이돌 공연과 함께, 매월 다양한 할랄 K-푸드를 주제로 홍보 챌린지에 참여한 2026년 K-푸드 서포터즈 1기 30인의 해단식 및 우수 서포터즈 5인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져 현장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인도네시아 무슬림 소비자는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과 한국산 할랄식품이 준비되어 있어 매월 주말마다 홍보관을 방문했다”라며, “또한 진짜 K-푸드 맞추기 퀴즈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평소 장을 볼 때 한국산 제품을 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10월 18일 할랄인증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10월 16일 일부 품목에 대한 2년 유예 결정이 발표되었다. 이에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일 또한 2028년 10월 18일로 미루어졌으며,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선적전 할랄·비할랄 적합성 여부를 사전 판단하는 적합성검사 규정 또한 전면 폐지된 상황이다.



K-브랜드 해외 홍보관 한국산 농수산 쿠킹쇼 현장

aT 신동희 자카르타지사장은 “무슬림 인구가 2억 5천명에 달하는 거대 할랄시장 인도네시아 공략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aT는 할랄인증 의무화 유예 발표에 대해 즉시 파악하여 신속한 전파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다양한 홍보 사업의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부/ 편집부 종합)

오케이 치과 병원

ROYCE
ROYCE DENTAL GROUP

OK Dental Clinic



1 한국-인도네시아 협진 시스템
Korea-Indonesia Collaboration System

2 임플란트-최소절개시술
Implant - Minimally Invasive Procedure



3 찌까랑 지점 오픈

OK치과가 특별한 이유
- ROYCE 본원 협진 시스템
-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 개인 맞춤 치료 플랜
- 사후관리 및 한국 연계 진료 지원

로이스치과
공식 모델 정준호

Monday - Friday = 10:00AM - 19:00PM
Saturday = 09:00AM - 17:00PM

OK Dental Clinic

자카르타 주소 (Jakarta)
Blok C, Jl. Wijaya II No.38, Rt.6/Rw.1
Pulo, South Jakarta 12160

찌까랑 주소 (Cikarang)
K-Eduplex Jl. Ganesha 2, Lot B1,
Deltamas, Pasirranji, Cikarang Pusat, Bekasi

문의 : Tel : 021-720-1779 HP : 0821-2255-7980 Email : okdental02@gmail.com

제20회 아시아한글학교협의회 교사연수회 인도네시아 발리서 성료
“생성형 AI와 활동 중심 수업으로 차세대 한글교육의 미래를 열다”

- 아시아 10개국 23개교 교장·교사 등 150여 명 참석, 3박 4일간 역량 강화 및 교류
- 15년 이상 장기근속 교사 9명 및 모범교사 19명 표창… 헌신과 노고 격려
- 재외동포청, 2027년 예산 증액 및 폭넓은 지원 확대 예고로 현장 기대감 고조



제 20회 아시아한글학교협의회 교사연수회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재외동포청 김민철 차장의 기조강연(가운데) 강사 김택수교수(좌) 조동현교사(우)
2026년 10월 20일(화)

아시아 각국에서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한글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들이 인도네시아 발리에 모여 미래 지향적인 한국어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아시아한글학교협의회(회장 정문교)가 주최하고 발리세움한글학교가 주관한 ‘제20회 아시아한글학교협의회 교사연수회’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이번 연수회에는 아시아 10개국 23개 한글학교의 교장 및 교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교육 역량 강화와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감동의 선율로 시작된 개회식… 헌신한 교사들에게 표창 수여

연수회 첫날인 20일 열린 개회식은 발리 현지 ‘소망의꽃·비전하우스 보육원 연합 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으로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막을 올렸다. 백형균 선생의 지도로 무대에 오른 연합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선율로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개회식의 분위기를 한층 온화하게 만들었다.

이어 정문교 아시아한글학교협의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본격적인 공식 행사가 시작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한상수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발리분관 총영사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축사를 대독했으며, 김규년 인도네시아 한국교육원장이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의 축사를 대독하며 연수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특히 이번 개회식에서는 척박한 해외 교육 현장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한글과 한국문화를 보급해 온 교사들의 헌신을 기리는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15년 이상 교육 현장을 지킨 교사 9명에게 장기근속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한글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교사 19명에게도 표창장이 전달됐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교육 일선에서 헌신해 온 동료 교사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생성형 AI’와 ‘참여형 활동’ 결합… 실질적 교수법 집중 연수

올해로 스무 번째를 맞이한 이번 연수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에 발맞추어 ‘생성형 AI 활용 수업 및 재미있는 활동 중심의 한글교육’을 핵심 주제로 삼았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교사들이 즉각적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과 교육자료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격적인 연수가 시작된 21일에는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의 기조강연이 진행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김 차장은 현재 재외동포청이 추진 중인 한글학교 지원사업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일선 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했다. 특히 다가오는 2027년부터 적용될 폭넓은 수준의 지원 내용 변화와 예산 증액 계획을 밝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현장 교사들은 향후 교사 수당의 현실화 및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진행된 본 연수에서는 교사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지도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초 수업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튿날인 22일에는 ‘재미있는 한글교육’을 주제로 한 심도 있는 강의와 생성형 AI 활용 심화 교육이 이어졌으며, 각 한글학교의 특색 있는 특별활동 사례와 교육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또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문화부 등 교육 대상별로 세분화된 분과 모임을 통해, 각국 한글학교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수업 경험과 고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차세대 동포 청소년들의 꿈과 역사 의식을 고취한 다채로운 부대행사

교사들의 직무 연수와 더불어,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고 미래의 꿈을 격려하는 뜻깊은 행사도 병행됐다. 21일에는 나의꿈국제재단이 함께하는 ‘제11회 청소년꿈발표축제’와 김구재단이 후원하는 ‘제14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 시상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

아시아 7개국 한글학교에서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명의 학생이 본선에 진출한 ‘청소년꿈발표축제’에서는,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항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밀알한글학교의 최지현(중2) 학생이 영예의 1등을 차지했다. 함께 진행된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에서는 아시아 10개국에서 선발된 13명의 학생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으며, 최고상인 백범상은 ‘백범의 시계’를 집필한 필리핀 필리친한글학교의 은지수(중3) 학생에게 돌아갔다.

아시아 한글교육 네트워크의 중심… 2027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재회 기약

연수회 마지막 날인 23일, 참석자들은 발리 현지 문화탐방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아시아한글학교협의회 교사연수회는 그동안 국가와 학교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 지역 한글교육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대표적인 교육 교류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지난 2024년 필리핀 마닐라, 2025년 베트남 호찌민에 이어 올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진 연수회는, 오는 2027년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무대를 옮겨 그 명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수회의 성공적인 개최 뒤에는 재외동포청, 김구재단, 나의꿈국제재단을 비롯하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발리 대한민국 분관, 인도네시아 한국교육원, 발리한인회 등 여러 기관과 단체의 전폭적인 후원과 협조가 있었다. 이번 발리 연수회를 기점으로 한층 더 진화한 교수법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아시아한글학교협의회가 앞으로도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의 발전과 한글문화 확산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동포사회부 / 편집부 종합)



제 20회 아시아한글학교협의회 교사연수회 인도네시아 발리. 2026.10월24일


충남 우수상품
시식행사
충남의 맛을 만나보세요
해멸첨
ANCHOVY
NICE CHIPS
프로틴
쿠키
키미쫑
기간: 11월 16일~ 11월 30일.
장소: 무궁화 본점 1층.
Chungnam
kotra
MU GUNG HWA

‘3개월 만에 TOPIK 2급’ 성과 입증…
(주)한이재미, 인도네시아 공교육·명문대 연계 영토 확장 본격화

- 스마랑 WTC, 한이재미 시스템 도입 후 ‘3개월 내 토픽 2급 도달’ 등 폭발적 성과 창출
- 명문 디포네고로 대학교(UNDIP) 포말랑 캠퍼스 수산학과 80명, 한이재미 교재 정규 학습 돌입
- 1,200명 규모 SMK 파딜라 고교, 내년부터 전격 도입 확정… 인도네시아 ‘교육 한류’ 주도
- 현지 교원 연수 · 교재 · 플랫폼 통합 지원… ‘독립 교육과정’ 흐름 탄 실전형 한국어 교육 모델로 급부상



포말랑 디포네고로 대학교 수산학과 강의실에서 한이재미 교재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80명과 배가령 대표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카르타 = 한인포스트] 글로벌 한국어 교육 전문 기업 (주)한이재미(대표 배가령)의 혁신적인 한국어 교육 시스템이 인도네시아 현지 교육 생태계에 거센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한이재미의 독자적인 교육 솔루션이 인도네시아의 직업훈련원은 물론, 국립 명문 대학교와 대규모 공립·사립 고등학교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례 없는 괄목할 만한 교육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내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 기업 취업 및 유학을 희망하는 현지 청년층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의 한국어 교육 인프라는 원어민 교사 부족과 비효율적인 문법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실무 회화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한이재미가 제시한 ‘교원 연수-맞춤형 교재-디지털 플랫폼-공인 평가’로 이어지는 통합형 교육 모델이 현지 교육계의 갈증을 완벽히 해소하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스마랑 WTC가 증명한 기적, “불과 3개월 만에 TOPIK 2급 수준 도달”

한이재미 교육 시스템의 가장 눈에 띄는 실증적 성과는 중부 자바의 핵심 도시 스마랑(Semarang)에 위치한 전문 교육훈련기관 WTC(World Training Center)에서 도출되었다. WTC는 한국 취업을 목표로 하는 현지 훈련생들의 어학 능력을 단기간에 극대화하기 위해 한이재미의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이곳에서는 한이재미의 체계적인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현지인 교사진이 수업을 주도한다. 이들은 한이재미가 자체 개발한 『Fun & Easy Korean』 교재와 첨단 디지털 티칭 플랫폼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놀라웠다. 기존의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시청각과 신체 활동을 결합한 교수법을 적용하자, 수강생들의 실무 회화 능력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것이다. 학습을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대다수의 수강생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및 실용한국어능력시험(TOKA) 2급 수준에 도달하는 경이로운 학습 효율을 실증해 냈다. 통상적으로 기초 학습자가 2급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인도네시아 어학 교육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폭발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 명문 디포네고로 대학교(UNDIP) 수산학과, 전문 지식에 한국어 날개 단다

직업훈련원에서의 성공 사례는 인도네시아 고등교육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로 이어지며 순항 중이다. 중부 자바 포말랑(Pemalang) 지역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최고 명문 국립대 중 하나인 디포네고로 대학교(UNDIP) 캠퍼스에서는 수산학과 재학생 80명이 한이재미 교재를 정규 학습 교재로 채택해 집중적인 한국어 학습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배가령 한이재미 대표는 무더위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80명의 디포네고로 대학교 수산학과 학생들을 직접 만나 학습 현황을 점검하고 따뜻한 격려와 함께 생생한 조언을 전했다.

이 대학 수산학과 학생들은 자국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한 전공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한이재미의 시스템을 통해 탄탄한 한국어 역량을 다지고 있다. 이는 향후 한국의 선진 수산·해양 관련 기업으로의 전문직 취업은 물론, 한국 내 대학원 진학 등 유학 진출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대학 측은 한이재미의 실용적인 커리큘럼이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200명 규모 ‘SMK 파딜라’ 고교 전면 도입 확정… 공교육 시장 본격 개척

대학가를 넘어 인도네시아 정규 공교육 시장으로의 진출도 가시화되었다. 약 1,200명 규모의 재학생을 보유한 현지 명문 직업고등학교인 ‘SMK 파딜라(SMK FADILAH)’는 내년도 신학기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이재미의 교재와 교육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한국어를 집중 교육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번 대규모 도입 결정의 이면에는 인도네시아 교육부가 추진 중인 ‘독립 교육과정(Kurikulum Merdeka)’의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학생들의 실무 역량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 정책 기조에 한이재미의 실전형 한국어 교육 모델이 완벽히 부합한 것이다.

특히 SMK 파딜라 학교 관계자들은 한국어 비원어민인 현지 교사들의 수업 준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원어민 수준의 발음과 시청각 자료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한이재미의 ‘디지털 티칭 플랫폼’에 깊은 신뢰를 표명했다. 교사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이 좌우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디지털 기술과 체계적인 매뉴얼로 극복했다는 점이 대규모 도입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 ‘6감 교수법’과 ‘TOKA 평가’의 유기적 결합… K-에듀의 새로운 표준 제시

이처럼 (주)한이재미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파죽지세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창적인 ‘6감(Six Senses) 교수법’과 빈틈없는 ‘토털 교육 시스템’에 있다. 시각, 청각, 촉각 등 인간의 감각을 총동원해 모국어를 습득하듯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체화시키는 교수법이 현지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극대화한 것이다.

배가령 (주)한이재미 대표는 이번 인도네시아 현지 성과에 대해 강한 자부심과 함께 향후 비전을 밝혔다. 배 대표는 “스마랑 WTC에서 입증된 3개월 만의 어학 능력 급성장 성과, 디포네고로 대학교 학생들의 뜨거운 향학열, 그리고 1,200명 규모의 SMK 파딜라 고교와의 전면 도입 약속은 한이재미의 6감 교수법과 토털 교육 시스템이 인도네시아 교육 현장의 절실한 필요를 완벽히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한국어 교재 보급이나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며, “현지 전문 강사 양성 교육부터 디지털 플랫폼 지원, 나아가 실질적인 구사 능력을 측정하는 공인 평가인 ‘TOKA(실용한국어능력시험)’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청년과 학생들이 한국 취업과 유학이라는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동포사회부/ 편집부)



SMK 파딜라(SMK FADILAH) 고등학교 관계자들과 배가령 대표가 내년도 한국어 집중 교육 시스템 도입 관련 의견을 나누고 단체 사진

invitation

(사)한국서예협회 인도네시아지회
The Indonesia Branch of Korea Calligraphy Association

제18회 자필묵연 정기전
The 18th Japilmukyeon Exhibition

내 삶의 한 단어
One Word of My Life

▪ 초대합니다 ▪

제18회 自筆墨緣 정기전에 삼가 모십니다.

적도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먹을 가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한국서예협회 인도네시아지회 자필묵연이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어느덧
열여덟 번째 정기전을 펼칩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내 삶의 한 단어〉 입니다. 회원 저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 깊이 품어 온 한 단어를 골라 화선지 위에 새겼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스스로를
갈고닦으며 문화의 뿌리를 지켜 온 한국인의 열정이 한 획 한 획에 스며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사)한국서예협회 송현수 이사장을 비롯하여 오치정 서울시지회장,
최명식 경기지회장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시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십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걸음하시어 은은한 묵향 속에서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나누어 주신다면 더없는 기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riod **2026. 11. 26 Thu ~ 30 Mon**
Open 10am · Closing 6pm

Venue **WISMA KORINDO 2F Special Exhibition Hall**

Opening Ceremony **2026. 11. 26 Thu 3:00 pm**

主催 _ 社團法人 韓國書藝協會 印尼支會
主管 _ 自筆墨緣

出品作家

이정 권장문	일우 김도영	유경 김동석	초아당 김수연	하정 김영욱	운초 김영주
무불 김유만	연청 김인숙	설초 김채선	초여 김혜영	동음 김혜정	송운 김희선
시화 김희진	유정 노정희	추산 박도연	가산 박성대	정산 박주현	혜산 송판원
보덕 신동필	우빈 양승식	연포 이규환	여산 이성득	묵정 장 임	이도 정재익
유석 정철호	도념 제경종	풍곡 조용래	익조 최태립	송헌 한규성	

〈지도선생〉 인재 손인식 〈찬조출품〉 문정 송현수 · 혜천 오치정 · 취평 최명식

〈시〉

누에의 부활



이태복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아기처럼 자라면서

누에는 허물을 벗을 줄 안다

누에 같은 삶이 늙으면 끝이런가?

생애 마지막 몸부림

자신을 하나하나 버려

사랑하는 집을 짓는다

나를 가두는 아름다운 감옥

평생 살아온 생이 헛될까

이기심과 욕망 모두 가두고

그렇게 죽는다

죽고서야 얻는 자유

나비로 부활한다

시작 노트:

지난 10월은 고 이태복 시인의 1주기이다. 쉰다섯에 사업가에서 문학가로, 자카르타에서 중부자바 살라띠가로 자리를 옮긴 그가 남긴 것, 시집으로 〈민들레 적도〉, 〈자바의 꿈〉, 소설집 〈소설 암바라와〉가 있다. 고인이 처음 인도네시아 한인문인협회에 모습을 드러낸 2013년, 그후, 10여 년 동안 이룬 업적으로 실로 대단하다. “평생 살아온 생이 헛될까” 이루지 못한 꿈도 많다. 고인의 첫 시집〈민들레 적도〉에 수록된 “누에의 부활”이 새롭다. “죽고서야 얻는 자유/나비로 부활한다” 시처럼, 나비로 부활하여 자바의 평원에서, 고향 예천의 용궁면 들판에서 영면하소서! 글: 김주명(시인)



재외국민 한인동포-외국인을 위한 한국 건강검진 프로그램

검진예약 원스톱 플렛폼 '스캔포스트'

ScanPost 스캔포스트
Korea Medi Check Solutions & Services

www.scanpost.kr

- 한국건강관리협회 공식 글로벌 에이전시
- AI기반 최첨단 의료 인프라와 최다 의료진
- 여행지 전국 주요도시 17개 지부에서 검진
- 외국인 전용 검진센터(인천.서울.원주.부산.제주)
- 내/외국인을 위한 동일 가격 패키지 제공
- 주요도시 국내 관광 여행 최고 패키지 완비

코리아메디패스 (Korea Medipass) 한국건강관리협회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SOFTZION HanInPost 한인포스트 JACY CLUB

@scanpost

koreascanpost@gmail.com / kakao ID : scanpost

www.scanpost.kr





